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재향군인신문

인 터 넷 향 군
www.korva.or.kr

1962년 5월 16일 창간 | THE KOREAN VETERANS NEWSPAPER | 2020년 7월 1일 수요일 제828호

향군, 미 참전용사 희생·헌신 대한 감사 … 화상회의

코로나 19 상황, 화상으로 간담회… 성금 1만불, 마스크 5만장 전달

향군 김진호 회장은 6월30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미 한국전참전협회(KWVA) 폴 커닝햄(Paul Cunningham)회장,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KWVMF) 존 틸렐리(John Tilelli) 이사장과 화상으로 보은행사를 갖고, 미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진호 회장 모두 발언, 미 한국전참전협회 커닝 햄 회장에 대한 향군대휘장 수여, 참전용사들을 위한 성금 1만불 및 마스크 5만장 전달, 6·25전쟁 70주년 기념 동영상 시청, 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편지 낭독, 화상 간담회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가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 현지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화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김진호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으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해로 한국정부와 향군이 많은 행사를 준비했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게 된데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70년 전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아들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름도 모르는 나라, 어디인지도 모르는 나라에 기꺼이 달려와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흘려 싸웠고, 이러한 혈맹 관계가 한미동맹으로 발전되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동맹인 미국은 한번도 한국을 떠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 할 것이라며 1천만 향군을 대표해 감사드리며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커닝햄 참전협회 회장은 "70년 전 한국전에 참전하여 우방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그 때 생각이 많이 난다며 전쟁 후 한국이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국제무대에 우뚝 서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보은을 베풀어 주는데 대해 감격스럽다"며 "특히 지난해에 이어 김진호 향군회장님이 진심어린 보은행사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며 참석자 가족들이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화답했다.

틸렐리 추모재단 이사장은 "김진호 회장께서 지난해 범 국민적인 '추모의 벽' 건립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금을 전달해 주시고 한국정부가 '추모의 벽' 건립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2년까지 '추모의 벽' 건립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 한국정부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모의 벽' 건립사업은 한국전에 참전했다 전사한 미군 3만6천명과 함께 싸우다 전사한 카투사 8천 명 등 4만4천 명의 전쟁 영웅 들을 잊지 않기 위해 '추모의 벽'에 이름을 새겨 넣는 사업으로 한국과 미국이 피로 맺어진 혈맹임을 보여주는 징표이자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는 무한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는 산 교육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향군을 대표하여 정윤성 차장이, 청소년을 대표하여 국제고 1학년 김원재 군이 감사의 편지를 낭독,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커닝햄 참전협회 회장은 1950년 9월부터 1952년 2월까지 17개월 동안 한국전에 참전했으며, 2018년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존 틸렐리 장군은 1996년 7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한미연합사령관으로 근무한 친한 인사다. 김진호 향군 회장이 합참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제1차 연평해전을 비롯해 5차례에 걸친 북한의 군사도발에 최고의 파트너십을 발휘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누구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 2019년 6월부터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호국영령 추모…안보의식 제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중앙보훈병원 위문, 보훈실천

향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 6·25 70주년을 맞아 국군장병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국민 안보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6월5일 제65회 현충일을 앞두고 향군 임직원들은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복을 빌었으며 이 자리에서 김진호 회장은 방명록에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이분들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양승숙 여성 부회장은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전상용사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1천만 향군의 이름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용사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위문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향군은 정부 주관 현충일 추념식과 6·25 기념식에 참석을 비롯해 전국 각급회 별로 △6월 한 달간 호국보훈 현수막 설치 △현충원 및 충혼탑 참배 △전상용사 위로 방문 등 다양한 안보계도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내 최고 최대 안보단체 향군의 위상을 고양했다.

향군, 미군 평택기지 방문 … 위문품 전달

'코로나19' 상황 하에 한반도 평화 안정 지원 감사

향군은 6월11일 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향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주한미군 전입 장병들을 위해 준비한 초코파이, 음료수 등 스낵세트 500개를 전달했으며 아울러 마스크 1만장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부서와 절차에 대해 협의했다.

(주)중앙고속관광 ▪ 사자투어
02-738-8844 | www.SAJATOUR.com

향군, 안보교수 워크숍 개최…정예 선진강군 육성 '일조'

장병 정신무장 강화, 임전태세 확립…성공적인 장병교육 시행

향군이 국방부 대대급 민간전문강사 초빙교육 용역사업에 최종 낙찰된 후 이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마련된 향군 안보교수 워크숍이 6월5일 안보교수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용석 호국안보국장은 "국방부 지침의 적극 이행을 위한 교육준비단을 구성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내용과 강의기법, 교수법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위촉강사인 김요셉 리액션연구소 대표는 영상을 곁들이 사례를 제시하며 "교관은 피교육자에게 신뢰, 외모, 공감의 지름길을 만들어 소통해야 한다"며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청중들이 공감해야 신뢰할 수 있다"고 강의기법을 소개했다.

향군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하여 임전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가 되도록 지원하는 성공적인 장병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군은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6월15일부터 12월18일까지 '6·25전쟁 70주년 계기 애국심과 군인정신 사례, 국군의 시명과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다짐'을 주제로 총 524회의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호국영령 명예훼손 군 인권센터 규탄

향군 성명, 창군원로 56명 파묘…인권유린 행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친일청산' 운운하며 "현충원에서 친일파 무덤을 파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월4일 군인권센터는 더 나아가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 군인 56명을 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향군은 6월8일 성명을 통해 "군인권센터가 파묘를 주장하는 56명은 해방 후 창군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국가로부터 임용된 인재들로서 김일성의 불법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6·25 전쟁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낙동강전선에서 지켜내고 한반도 공산화를 막아낸 전쟁 영웅들로서 이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창군원로들을 친일파로 몰아 현충원에서 파묘하자는 주장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김일성의 공산화를 막아낸 공로로 현충원에 안장된 전쟁영웅들을 토사구팽하자는 주장이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정한 군인권센터라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군인과 군을 거쳐 간 예비역 등 모든 군인들이 권리를 침해 받거나 인권을 유린당할 경우 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 기본사명이어야 한다"며 "인권보호를 생명처럼 여겨야하는 인권단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전쟁영웅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유린에 앞장서는 저의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인권단체인지 국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호국영령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역사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1300만 회원과 함께 강력히 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논 단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상황을 지켜보면서

박 성 규
전 1군사령관 예) 육군대장

북한이 지난 6월 16일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 건물은 정부예산 18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의"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보수한 것으로 우리의 재산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야는 물론 모든 매스컴에서도 양쪽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다.

먼저 현 상황과 관련하여 눈여겨 살펴봐야 할 것은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이다.

주도권을 군에서는 "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아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투를 이끌어 가는 능력" 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전투가 되었던 타협이던 간에 주도권을 누가 확보 하느냐에 성패가 좌우된다.

우리가 북한의 핵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도 전력의 균형이 깨지면서 바로 주도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주도권을 잃으면 상대에게 계속 끌려 다녀야 한다. 이번에도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북한이 긴장조성과 대화분위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이다.

현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서를 보면 평화를 핵심적인 국가 이익으로 설정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되어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한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도권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현 상황에 대한 인식문제이다. 북한의 이번행위는 명백한 도발이자 적대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이나 응징하자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아쉬운 대목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역(지·해·공)은 물론 재산에 대한 위해(危害)행위와 무력사용까지도 도발이자 적대 행위로 보고 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 할 때 마다 도발 운운하는데 사실 그것은 미사일 진행방향과 낙하지점 등을 고려했을 때 도발이라기보다는 무력시위나 무력증강에 따른 시험평가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도발행위는 전혀 다르다.

국방부만큼은 이번 폭파 행위의 성격을 분명히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더 강력한 경고성명을 내 차후 도발 시 교전규칙에 따라 강력히 응징하고 도발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었어야 했다. 그래야 국민들이 군을 믿고 불안 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군은 현 상황을 위기로 판단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갖추어 모든 위협으로부터 확고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할 엄두조차 못 내도록 말이다.

셋째, 우리 정부는 이번 도발 이후에도 "남북관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관계개선"은 정부의 확고한 전략인 것이다. 전략은 그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이익)가 있다. 그리고 전략은 이러한 목표와 상황과의 변증법적 대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기에 나름대로 상황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목표와 상황 판단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그러나 그 판단 과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부단히 설득하여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 상황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위기관리에는 무조건 대응이 아닌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이 휴전이후 3천여회의 도발을 했지만 그때마다 대응만 했지 전략이 없었다. 그 결과, 북한을 더욱더 대담하게 만들었고, 전쟁협박과 도발을 반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가 그렇게 길들였다. 이제라도 위기관리전략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고민해야한다. 또 위기관리를 잘하면 대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평화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니다. 흔히 전쟁의 속성을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역동성 등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더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모호한 것이 남북관계이다. 그렇지만 "평화"라는 핵심적인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하나로 결집해야 할 것이다.

김진호 회장,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우회원 대상 안보강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김진호회장(예, 육군대장)은 6·25 70주년을 맞아 24일 아침 고대교우회관에서 고대경영전문대학원 교우회(고경아카데미)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현대사와 안보문제에 대한 특강을 했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⑳

시대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

향군조직(중) : 1980년대 ~ 2000년

이 시기는 향군조직의 개편과 변화가 심했던 기간이다. 20여 년 동안 19차례 개편을 했으며 거의 1년에 한번 씩 직제를 바꾼 것이다.

1980년대 들어 첫 개편은 1980년 5월2일 제3차 이사회다. 복지업무의 확대 및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가 되었다. 이때 복지부를 신설하고 복지과와 직업 안정과를 두었으며 직업안정과에서는 예비역에 대한 취업알선, 안내소 업무감독, 해외 인력송출, 직업훈련 및 취학 주선, 직업안정 홍보업무를 수행했다.

1981년 2월에는 상무재단과 부녀회 등의 해산으로 본부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국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부녀부(현재 여성회)를 비상임으로 신설하여 부녀회원 관리업무를 관장토록 하였다. 그 이후 80년대 후반까지는 부분적인 개편은 있었으나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1982년 12월 부서명칭 변경 및 부서별 업무분장이 있었으며 83년에는 정관이 변경됨에 따라 직제 중 정관과 상이한 부분을 조정하고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수정하는 변화가 있었다.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안보연구소, 홍보실 신설

1987년 들어 시대변화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기구로 정비하기 위해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획국 전산과, 안보국 안보전문위원실, 총무부 인사과, 부녀부 부녀과가 신설되고 총무부 이재과를 관재과로, 안보지도위원을 안보전문위원으로 개칭했다. 이어 1988년 안보연구소가 설치되었으며 1989년 홍보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홍보실을 신설하고 홍보과와 편집과를 두었다.

1992년 12월 회법개정과 1993년 3월 정관이 변경됨에 따라 각급회의 명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지회→시·도회, ▲연합분회→시·군·구회, ▲본회→읍·면·동회로 개칭했다.

1994년 7월 장태완 회장 취임 후 본회기구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본회의 기능을 하급회에 대한 지시·통제기능으로부터 벗어나 지원 협조하는 기능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기존 4국 4실 3부 16과를 2국 3실 2부 12과로 축소하고, 정원도 기존 125명에서 85명으로 줄이는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축소된 조직운영은 오래가지 않았다. 1995년12월 제3차 이사회에서 1년여 만에 하부조직 활성화 및 500만 회원을 위한 복지확충, 제2안보 보루로서의 역할 및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본부기구가 대폭 확대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회장과 사무총장 회무를 보좌하기 위한 부설기관 설치 ▲복지국 신설, 전체회원 복지증진 ▲안보교육국과 안보정책위원회 포함 안보정책본부 신설 ▲홍보과를 홍보실로 기능확대 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됐다.

외환위기로 부서 축소(10개→8개) 현충사업단, 사무총장 직속 독립부서로

1996년에는 향군묘지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전 회원 복지증진 및 호국정신 선양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2000기획단(복지사업 개발단)과 호국정신선양운동본부, 향군묘지조성추진본부를 두는 등 일부 조정이 있었으며 1997년 국가적으로 외환위기로 인해 향군은 대폭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본 회의 10개 부서를 8개 부서로, 조직운영국과 복지국 통폐합, 부설기관 통폐합, 정원 133명에서 102명으로 감축에 이어 1998년12월 2000기획단, 호국정신선양운동본부등을 해체하고 현충사업단을 사무총장 직속 독립부서로 개편하였다.

다음 하편에서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조직 변천과정을 알아본다. 〈홍보실〉

■특별기고

6·25 전쟁과 정전협정, 한반도 평화 구축

6·25전쟁 70주년! 6·25전쟁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청소년들에게는 어쩌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세대가 겪은 옛날 전쟁 이야기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70년 전에 발생한 그 전쟁이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 아니면 그 전쟁은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닐까?

아직도 진행형인 6·25 정전협정이 원인

6·25전쟁이 아직도 '진행형' 이라는 의아심(?)은 바로 '정전협정' 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7월이 가기 전에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단재 신채호)고 하지 않았던가! 정전협정을 되돌아보자. 3년 동안 계속되었던 전쟁을 일시적으로나마 '정지' 하고 숨을 돌리게 된 정전협정! 체결된 지 이번 달로 67년이 되었다.

67년이 지난 지금 '전쟁' 은 중지되었지만 그렇다고 '총성' 마저 중지된 것은 아니다. 불과 두어 달 전인 지난 5월에 전방부대에서 남북한 군 사이에 총격이 오고 갔다. 이것이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의 일시적 중지상태' 임을 말해주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의 당사자인 우리는 정전협정에서 서명의 당사자가 아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 미국 육군 대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군 사령관 팽덕회 이들 3자 간의 서명으로 정전협정은 조인되었다.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전협정이라는 것이 교전 쌍방국 군대의 사령관사이의 군사협정이기에 6·25 당시 작전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우리로서는 정전회담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정전협정 자체를 반대하고 막연하지만 '통일한국' 을 추구하고 염원했기 때문이다.

정전회담은 2년 동안 지지부진했다. 한편에서는 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한편에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고자 일진일퇴의 전쟁이 계속되었다. 그 이면에는 소련 스탈린의 계략이 숨어 있었다고 한다. 즉 계속적인 전쟁을 통해 미국과 중공의 전투력이 소진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회담은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에 빠르게 진전되어 마침내 1953년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서명식을 갖게 되었다. 그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외에도 전쟁포로 교환 문제 등도 회담의 장기화에 복합적으로 작용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서언 및 전문 5조 63항과 부록 11조 26항으로 구성된 정전협정은 지난 67년간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억제와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6·25전쟁이 '실질적으로' 는 끝났다고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 방법에 따라 갖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전협정의 성격이 전쟁의 일시적 중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를 구축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쟁의 '완전한 종결' 과 '평화협정 체결' 을 위한 디딤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남북한의 정치적 여건과 안보 환경,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질서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67년 지난 정전협정 평화협정 체결 디딤돌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맞물려 돌아가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의 많은 정치지도자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뇌함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법 또한 간단치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우리 문제를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 풀어 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전협정의 달 7월을 맞아 6·25전쟁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까지 지나 온 길을 되돌아보자.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확고한 결의로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 원 식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원

군인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본격 시행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 강화

장애보상금 지급수준 늘리고 원인따라 차등지급

지난해 12월19일 공포됐던 군인 재해보상법과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한 군인연금법이 6월11일부터 시행됐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 복무 중 부상 · 질병 · 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나라를 위한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는 보상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그간 군인연금법에 통합되어 운영해오던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제정되었으며 장애보상금의 지급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다.

또한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를 신설하여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개정 군인연금법은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 연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 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등에도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 그 밖에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 · 보완했다.

유격훈련중인 국군장병들

희생·평화·번영 상징, 6 · 25전쟁 70주년 기장 제작

국방부, 6 · 25전쟁 기억하고 군 간부들의 자부심 고취

정장 · 약장 등

'대한강군' 휘호

기장 보관함

국방부는 6 · 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군 간부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6 · 25전쟁을 기억하기 위해 희생 · 평화 · 번영을 상징하는 70주년 기장을 제작했다. 6 · 25전쟁 기장은 1990년 40주년에 맞추어 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역 간부 중에는 패용자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6 · 25전쟁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상징물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제복을 착용하는 현역 간부가 패용할 수 있는 기장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장은 정장과 약장, 기장증, 보관함으로 구성되어 기장의 핵심 구성품인 정장에는 한반도와 태극문양에 순은을 일부 사용했다.

정장은 한반도와 태극 바탕에 주요작전 및 일자를 정교하게 새겨 넣었으며 UN 참전국 22개국의 국기를 원형으로 상징화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았다.

약장은 조국수호 의지를 담은 황색선과 희망과 번영을 상징하는 하늘색을 사용하였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는 백금으로 도금했다.

또 군인의 명예와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기장의 품격과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서예가 하석 박원규 선생의 '대한강군' 휘호를 부장품으로 추가했다.

국민에 신뢰받는 우리의 국군

코로나 19로 인한 혈액 부족 지원

육군22사단이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감한 혈액공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계 헌혈자의 날을 앞둔 6월12일 혈액공급 안정화를 위해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벌였다. 22사단은 올 한 해에만 4300여 명의 장병이 헌혈에 참여해 약 172만mL의 혈액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생명을 꽃피우는 따뜻한 나눔'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해기지사령부, 해안환경정화

해군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는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부대 인근 소죽도 공원 해안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진해구청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병들의 환경보전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농번기 대민지원활동

공군1전투비행단(1전비)은 6월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대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 대민지원을 실시했다. 장병들은 하루 40명씩 총 120명이 참여해 비닐하우스 내 · 외부 정비, 모판 정리, 환경정화 등 대민지원을 이어갔다.

괭생이모자반 제거 작업

해병대 9여단 장병들이 6월3일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피해가 큰 부대 인근 조천읍 신흥리 일대 해안에서 해안에 가득 찬 모자반을 제거, 청정 제주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괭생이모자반은 어민들의 조업을 방해하고 자연 경관 훼손과 악취를 유발해 지역사회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국방단신

2020 전역예정 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

국방부, 연말까지 면접 및 채용절차 지원

국방부는 6월17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2020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무관중 ·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최초 3월에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몇 차례 연기되었고 수도권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부득이 온라인 박람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각 기업체 부스에서는 기업체에서 촬영한 채용설명회 영상을 전직교육원 취업박람회 홈페이지(http://moti.career.co.kr/) 및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장병들이 핸드폰을 이용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람회에는 기업체 채용관(70여개), AI 체험관(8석), 진로도움 컨설팅관(8석), 창업관(3석), 인적성검사관(20석), 취업세미나관(50석)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온라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채용설명회 영상을 박람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말까지 운영하며 오프라인 면접 등 채용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에스원과 업무협약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독려, 적극홍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월17일 본청 회의실에서 종합안심솔루션 기업 ㈜에스원과 "6 · 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6 · 25전사자의 직계가족들은 대부분이 고령이고 점차 세대가 바뀌고 있어 유가족 유전자(DNA) 시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에스원은 전국에 걸쳐 있는 조직 인프라를 활용해 70여 만 명에 이르는 고객과 국민들에게 6 · 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과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에스원은, ▲전국 계약처에 6 · 25 전사자 유가족 설명 및 '당신도 유(YOU)가족일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 홍보물 배포 ▲전국 지사에서 운용하는 에스원 출동차량에 유해발굴사업 홍보 랩핑 스티커 부착 ▲에스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국유단 활동 홍보 ▲고객용 고지서 내 유해발굴 사업 홍보내용 포함 배부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70주년 6·25기념식 '영웅에게'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 70여년만에 고향땅에 …

6·25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유엔참전국의 공헌에 감사하는 '6?25 전쟁 70주년 행사'가 6·25참전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25일 오후 8시20분 서울공항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앞서 정부는 美 DPAA(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에서 확인되어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귀환하는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최고의 예우로 맞이함으로써 6·25 70주년의 의의를 더했다.

보훈 참 의미 담은 '122609 태극기' 캠페인

유족 품으로 못 돌아온 호국영웅 헌신 기억해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 캠페인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은기, 이하 위원회)가 6월8일 공식 론칭한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 캠페인은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2,609명의 호국영웅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라는 부제를 통해 6·25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든든한 보훈의 참의미를 담았다.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인사 26명 정부포상

호국보훈의 달 정부 포상식…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24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전인식 씨 등 20명과 대외 유공인사 이병열 씨 등 6명 등 모범 국가보훈대상 26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전인식 씨 등 3명은 국민훈장을, 나머지는 국민포장(2명), 대통령표창(10명), 국무총리표창(11명)을 수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실시된 이날 포상식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전인식(78세)씨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오랜 세월 사회와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때는 보훈단체 회원들과 기름때 제거작업에 나섰고, 당시 봉사활동에 동참한 회원들의 내복과 식사비용도 지원하며 회원들의 봉사활동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김원진(82세)씨는 애국지사 김창도 선생(1898-1967)의 외아들로 만주에서 태어났다. 봉오동전투 및 청산리전투에 독립군으로 참전한 선친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사)흥사단 충북지부를 창설하여 1963년부터 현재까지 민족통일운동, 청소년 역사교육,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에 열성을 다해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이병열(77세) 씨는 퇴직 후 본격적으로 4·19 혁명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뛰어들어 2004년 광주 4.19혁명기념사업위원회를 조직하여 '광주4월혁명발상기념탑'과 '광주4.19혁명시비' 건립에 기여하는 등 4·19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일에 앞장섰다.

이번 수상자 중 최고령인 김영은 씨(87세)는 6·25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상이군경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전우들을 위해 보일러와 주택을 무료로 수리해 주고 청소년을 위한 무료 예절 강의에 적극 참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을 통해 젊은 시절에는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지금은 봉사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범국가보훈대상자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일에 힘써온 분들에게 국가가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발

취업, 의료, 각종 요금 감면 등 83종 보훈서비스 한 눈에…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전체 보훈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보훈서비스, '나만의 예우'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서비스를 보훈대상자 관점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보훈관련 서비스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서비스 이용은 '나만의 예우' 누리집(https://pmp.mpv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오류 개선과 불편사항 의견 반영 등 시범운영을 마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나만의 예우' 시스템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지원 등 46종의 서비스와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각종 요금 감면·수수료 면제 등 타 법에 의해 지원되는 37종을 포함하여 총 83종의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유엔참전용사 기억·감사·평화전'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김은기)는 6·25 70주년을 맞아 6월23일(화)부터 11월22일(일)까지 '유엔참전용사 기억·감사·평화전'을 개최한다. 전시회는 인천국제공항에서 6월23일부터 7월27일, 10월17일부터 11월21일까지 2차례, 전쟁기념관에서 7월20일부터 10월15일, 유엔평화기념관에서 10월17일부터 11월22일까지 열린다. '6·25 전쟁일'(6·25), '유엔군 참전의 날'(7.27),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을 기점으로 인천공항과 전쟁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전 70주년 추모의 날' 선포 운동

미 참전용사 찰스 게로드 씨 "잊혀진 전쟁 아냐"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 찰스 게로드 씨가 미국 50개주를 대상으로 6월25일을 한국전쟁 추모의 날로 선포하도록 하는 청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게로드 씨는 지금까지 24개주 주지사들에게 청원을 보냈고 아칸소, 매사추세츠, 미시건,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하와이, 뉴햄프셔 등 7개 주에서 선포문을 받았다.

게로드 씨는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지만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그냥 사라지도록 하고 싶지는 않다"며 청원 운동을 하는 배경을 밝혔다.

1952년 7월부터 1953년 11월까지 수원 미 공군기지의 전투비행단에서 무전기(ground radio) 수리를 담당했던 게로드 씨는 "전쟁 당시 폐허와 비참함, 슬픔만이 가득했던 서울이 이제는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고 폐허에서 환상적인 발전을 이뤄낸 것이 경이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회원 칼럼

'평화' 힘이 있을 때 주어지는 값진 선물

우리나라 근대사는 심각한 국론분열로 인한 국력의 소진으로 처참할 정도의 위기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열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했다. 경술국치 이후 조국광복에 이르기까지 당시 우리 국민 1700만 명 중 20대 젊은이들의 20% 이상이 희생되었고 6·25전쟁 당시에는 전사자 13만여 명, 부상 및 실종자 47만 7천여 명 등 62만여 명의 국군장병과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희생되었다.

국립묘지에 모셔진 1만6천위의 호국영령과 계룡대 명예의 전당에 모셔진 약17만 명의 전쟁영웅, 전쟁기념관에 모셔진 3만7천여 명의 전사자들은 이들의 일부일 뿐이다.

호국영령 희생 딛고
세계 속에 한국으로 우뚝 서

이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셨고, 되찾은 나라를 가꾸고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극도로 피폐해진 상처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한류문화를 통해 세계에 한국의 문화적 저력과 국위를 드높일 수 있었으며 코로나 사태에서는 최첨단 기술과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에 보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의 참화에 휘말리는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자문하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쟁과 평화, 분단과 통일이라는 당면과제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 국민 중 그 어느 누구도 전쟁과 분단을 원하는 이는 없을 것이며,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이도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정권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 군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전쟁억지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벌어지는 상황들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북한정권은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간헐적으로 살포하는 대북전단을 명분으로 남북 간의 대화단절을 비롯해 온갖 악담과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고 한미 간의 공조도 예전 같지 못하다. 특히 연이어 발생하는 서해안 밀입국과 민간인의 군부대 무단 침입이 증명하듯이 군 기강 이완과 경계태세 해이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가하면 친북종북세력의 반미투쟁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평화와 통일은 말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하고, 혈맹인 미국과 함께 북한의 무력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국민들은 상무정신을 바탕으로 총력안보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압도적인 국력 바탕으로
북한 굴복시키고 평화통일 이뤄야

이 땅에 전쟁과 분단을 종식시키려면 평화는 지킬 힘이 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값진 선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이 함께 하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사수와 서울 수복, 평양 선봉입성 등 혁혁한 전공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조국을 구해낸 백선엽 장군은 회고록에서 전쟁의 참혹성을 기억하는 자는 전쟁을 피할 수 있다. 늘 그에 대비하기 때문이다. 적에게 맞설 능력을 보유한 자는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다. 적이 감히 넘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국민 모두가 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존경할 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강력한 국방태세 확립과 국민들의 정신무장을 강조한 백선엽장군의 고언을 되새겨 주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주 대 진
전라북도 향군 회장

◆우수회 탐방 / 부산시 향군

재정위기 극복, 새 수익모델 개발…진구회와 통합회관 추진

'안보' 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후계 세대 안보 교육에 심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회 역량을 총동원, 지자체 및 국회의원 등과 유대를 강화하고 자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부산시 향군을 찾았다.

부산시 향군(회장 김윤호)은 원활한 회 운영을 위해 지난해 부산시로부터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운영비 지원은 최초다. 그리고 올해는 대폭 증액된 금액을 지원받기로 했다. 단기적인 처방이지만 회 운영비 절감이 절실한 부산시 향군으로서는 단비와도 같은 지원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산진구회와 통합회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향군회관을 매각하고 35년이 지나 노후화된 부산진구 향군회관 부지에 부산시 재향군인회와 부산진구 재향군인회 통합회관을 재 건립함으로써 자생력을 확보하고 자립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부산 최 요지에 위치한 부산진구 회관은 투자가치가 충분하고 지리적으로도 부산의 중심에 위치해 회 위상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향군은 이를 위해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구청을 방문하여 회관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전개했다. 4.15 총선 뒤에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도 자리를 만들어 이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

다양한 계층 자문위원 구성, 회 운영 활용
퇴직교원 단체와 협약, 내실 있는 안보교육

부산시 향군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회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역 방송국 아나운서, 변호사, 영화감독, 의사, 국악인 등이 참여하고 있는 자문위원단은 월1회 정기모임을 통해 향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체 회 활동 동영상 제작,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을 위한 위문공연 등을 그 성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단은 참전유공자 위문활동, 장학금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향군의 위상 강화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8대 여성회장으로 취임한 김현주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부산 가야금 병창보존회는 2014년부터 매년 6월 '향수'라는 제하의 호국영웅 기념공원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뜻을 기리며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있어 이미 지역에서는 큰 유명세를 타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후계세대 안보교육을 위해 퇴직 교원들의 단체인 '부산교육 삼락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회원들을 문예대회, 학생 안보현장견학 등 부산시 향군의 안보교육 행사에 초청하여 행사의 격과 수준을 높이고 있다. 부산시 향군은 나라사랑어린이교육, 호국학생문예대회, 1일 병영체험 등 후계세대 안보의식 함양교육과 함께 안보공감 연수, 안보강연 등 시민 안보의식 함양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훈단체 후원, 6·25 참전용사 생계비 지원
여성회 봉사활동, 향군 이미지 고양

보훈의식 실천에도 부산시 향군은 소홀함이 없다. 매년 연말 보훈회관을 방문하여 보훈단체 어르신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6·25전쟁 참전하신 분들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31분에게 평생 연간 5,580만원을 지원하는 등 호국영웅들의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회에서도 직접 김장한 김치를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무료 급식봉사와 군부대 장병 이발봉사, 현충시설 정화, 장애 어린이 도우미 봉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안보 공익단체 향군의 이미지 고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배가와 직결되는 복지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식·음료, 관광·숙박,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업체들과 향군할인 가맹점 협약을 체결하여 회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나아가 부산시민들의 마음속에 향군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다.

이처럼 부산시 향군은 사랑과 신뢰받는 향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안보활동은 물론 보훈활동, 사회공익봉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부산시민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

김윤호 회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열정과 회원들의 화합이 3위 일체가 되어 한번 도약하는 부산시 향군의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부산시 향군 아니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안보단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부산지역 교두보로 큰 역할을 기대해 본다.

6 · 25 참전용사 선배님 감사합니다

전주시 향군, 6 · 25 70주년 맞아 위문행사

전북 전주시 향군(회장 채창수)은 6월18일 관내 스위트 몰에서 6 · 25참전자 전주지회(회장 최맹규) 회원들

에게 6 · 25전쟁 제 70주년을 맞아 위문 선물을 전달했다.

채창수 회장은 6 · 25참전 호국영웅들에게 "대한민국을 지켜낸 6 · 25참전 호국영웅들이 희생과 용기를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고, 참전영웅들이 보다 존경받고 예우 받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문 선물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택배로 참전용사 각 가정에 직접 전달됐다.

경남 울산 향군 안보 보훈 단체장 간담회

경남 울산 향군(회장 손도수)은 6월16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식당에서 안주생 경남 동부 보훈지청장을 비롯하여 지역 안보 · 보훈단체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향군활동에 대한 소개와 향후 안보 · 보훈단체의 활동방향과 상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손도수 경남 울산 향군회장은 점차 미약해져가는 국민의 안보의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지역 안보 · 보훈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협력을 요청했다.

안주생 경남 동부 보훈지청장은 단체대표로 자리를 마련해준 경남 울산 향군에 감사를 표하고 안보 · 보훈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6 · 25 70주년 맞아 기념 헌화식

나라위해 목숨바친 참전용사 희생 기려

미 동부 향군(회장 김인철)은 6월24일 6 · 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헌화식을 거행했다.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이날 헌화식에는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 대사관 무관부 이성균 대령을 비롯해 재향군인회 회원 10명 등 최소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6 · 25 전쟁 보고, 헌화, 기념사 등으로 진행됐다.

권세중 총영사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급속도로 성장한 데는 한국과 미국의 굳건한 동맹관계가 바탕이 된 만큼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다"고 기념사를 전했다.

김인철 재향군인회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도 간소하게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향군, 참전유공자에 위문품 전달

보훈실천, 자유수호 위한 6 · 25 참전용사 위훈 기려

경기도 수원시 향군이 6월16일 호국보훈의 달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수원시 보훈회관에서 김영경 회장 등 향군 임직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6 · 25 참전 유공자회, 월남전참전전우회 등 보훈 · 안보 단체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위문품(라면 210상자)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품은 수원시 소재 이마트 4개 지점(수원점 · 광교점 · 서수원점, 트레이더스 수원점)이 후원했으며 수원시 향군은 위문품을 전달하며 참전용사들의 자유수호의지를 기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원시 향군은 2017년부터 이마트 후원으로 매년 6월 참전 보훈단체에 위문품을 전달해 왔다.

부산 향군,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일자리 창출 간담회

부산시 향군(회장 김윤호) 직원들과 13개 군 구회 사무국장들이 6월23일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초청으로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 설명 및 제대군인주간 공동 행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 천안시 향군, 고 오규봉 하사 추모행사

육탄으로 적 기관총 진지 파괴, 9사단 3군신으로 추앙

충남 천안시 향군(회장 방수정)은 6월9일 성환초등학교에서 육군 제9보병사단과 공동으로 백마고지 전투3용사인 고 오규봉 하사 추모행사를 거행했다.

천안 성환초등학교를 졸업한 고 오규봉 하사는 1952년 10월12일 백마고지 전투에서 중공군 저지를 위해 육탄으로 적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여 9사단을 위기에서 구했으며 이에 따라 전투영웅이자 9사단의 3군신으로 추앙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당시 전투경과 보고, 헌화 분향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족들과 각급 기관단체장, 향군회원, 군부대 장병들이 함께해 고인을 추모하며 공적을 기렸다.

캐나다 동부 향군, 현충일 추모행사

캐나다 동부 향군(회장 송선호)은 6월6일 이진수 한인회장, 정태인 총영사와 김연정 영사, 김찬호 참전용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램튼 메도우베일 참전자 묘지에서 현충일 추모식을 개최했다.

각급회 소식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5월21일 ~ 6월20일)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 6월5일 현충일을 앞두고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

강동구회 : 5월29일 현충일을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묘역정화 활동 실시.

노원구회 : 6월7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 참석.

동대문구회 : 여성회는 6월9일 배봉산 일대에서 자연정화 활동 실시. 6월16일 6 · 25전쟁 당시 산화한 학생 16지사 위령제례 실시.

강서구회 : 6월15일 개화산 호국충혼위령비 참배 및 세척, 주변자연정화 활동 실시.

서대문구회 : 6월17일 향군회관에서 6 · 25 70주년 기념 호국안보 결의대회 및 참전용사 위로연 개최,

부산시 향군

진구회 : 6월4일 6 · 25 당시 국군과 유엔군 치료를 담당했던 스웨덴 야전병원 기념비 및 주변 정화활동.

대구시 향군

동구회 : 5월22일, 6월1일 동서시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봉사활동 실시.

5월28일 청송 삼계탕에서 호국보훈안보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현안 논의.

남구회 : 6월2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앞산 충혼탑과 미 군사고문단 전적비를 찾아 참배 및 환경정화활동 실시.

달성군회 : 6월5일 제65주년 현충일을 앞두고 충혼탑 참배 후 주변정화활동 실시.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6월10일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평택시 서탄면 마두리 농가를 방문, 농촌 일손돕기 봉사.

남동구회 : 5월21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힘쓰고 있는 자원봉사자 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500만원 기탁. 6월10일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 6월17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소방관의 노고에 보답하기위해 직접 재배한 감자를 수확, 관내 119안전센터에 전달.

연수구회 : 6월14일 향군회관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회 활동방향과 지역사회 방역활동에 대해 논의.

경기도 향군

이천시회 : 여성회는 6월 4일 호국보훈의 날을 앞두고 설봉공원 현충탑 경내 환경정화활동 실시.

성남시회 : 6월8일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등 보훈단체와 봉사단체 '사랑의 손' 무료급식소 등에 코로나 19 방역 봉사활동 실시. 여성회는 6월11일 향군회관에서 제8대 김영숙 회장 취임식.

군포시회 : 6월1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보훈단체장을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갖고 유대강화 및 지역발전 기여 방안 논의.

강원도 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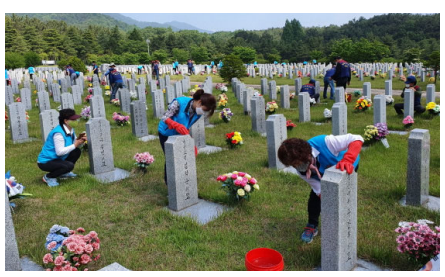
동해시회 : 북삼동 향군은 5월25일 쌍용가족봉사단과 함께 전천 환경정화의 날 행사를 갖고 전천 주변 환경정화활동.

충청북도 향군

충북도회 : 6월17일 대전 보훈병원과 청주효성병원을 방문하여 입원중인 참전국가 유공자 350명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쾌유 기원.

청주시회 : 6월5일 코로나19 혈액 수급 극복을 위해 헌혈의 집 충북대 센터를 찾아 임직원 단체헌혈 실시.

대전 충남 향군



대전 충남 향군 : 여성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둔 5월29일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제1묘역을 찾아 묘비세척 및 주변 환경 정화활동 실시.

대전 동구회 : 5월29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비석닦기 봉사활동 실시. 6월4일 3.16 인동장터 쓰레기청소 및 잡초제거 봉사활동 실시. 신인동회는 6월6일 신흥초등학교와 주변시설 방역활동 실시.

대전 서구회 : 5월29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비석닦기 봉사활동 실시.

대전 중구회 : 6월10일 대전지구전투에서 산화한 해외 호국영령 818위에 대한 추모식 및 전적지 주변 정화활동.

대전 유성구회 : 여성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둔 5월29일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제1묘역을 찾아 묘비세척 및 주변 환경 정화활동 실시. 6월6일 현충일 참배객을 대상으로 커피 및 생수 무료봉사활동 실시.

대전 대덕구회 : 5월29일 국립대전현충원 장교 제1묘역에서 자연정화활동 및 참배.

금산군회 : 현충일을 맞아 6월2일부터 5일까지 관련단체들과 함께 육백고지 전승탑 및 농어촌 도로 봉황천 둑길 등지에서 환경정비.

서천군회 : 5월29일 6 · 25 전쟁 당시 자유수호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호국영령의 위패가 모셔진 충령사를 찾아 제초작업 등 청소 봉사활동 실시.

공주시회 : 5월29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합동 참배 및 비석닦기 봉사활동 실시.

보령시회 : 6 · 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 국민 참여 캠페인에 동참, 관내 전체아파트 6,000 세대 엘리베이터 모니터 영상 광고. 6월17일 관내 군 부대 6 · 25참전유공자

초청행사에 맞춰 참전용사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차량 지원과 6 · 25 무공훈장 찾아주기 홍보활동 전개.

전라북도 향군

전주시회 : 6월3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전몰군경호국영령 합동 추모제에 참석, 전주출신 772위 호국영령 추모. 안보단체협의회는 6월10일 향군회관에서 안보정세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정읍시회 : 6월2일 정읍시를 방문, 유진섭 시장에게 8개 안보단체협의회 회원과 함께 모금한 코로나19-바이러스 성금 270만원 전달.

군산시회 : 송일재 육군 부회장은 5월26일 1962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표창장 및 회원증 등 유물 40점을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에 기증.

임실군회 : 5월29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임실호국원을 찾아 묘비 정화활동 및 태극기 꽂기 봉사활동 전개.

고창군회 : 5월23일 고인돌대교 부근에서 환경정화활동 실시. 6월11일 고창군청에서 2020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 드리기 사업 업무협약 및 봉사단 발대식.

김제시회 : 6월6일 제65주년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웅인 백마고지 육탄 3용사 고 안영권 하사 전공기념비를 찾아 헌화 · 참배.

부안군회 : 여성회는 6월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서림공원 호국영령탑 주변 정화활동 실시.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 6월5일 안보회관에서 시 군 구 회장단 간담회 및 전반기 업무성과 분석회의 실시.

영암군회 : 5월26일 영암읍과 학산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0가구에 대해 '사랑의 빨래방' 봉사활동 실시.

순천시회 : 5월21일, 25일 호국보훈의달인 6월을 앞두고 평중리 소재 6 · 25참전용사 기념탑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

보성군회 : 6월1일 망미봉산내 보성공원 현충탑 참배, 6월12일 문덕면 호국참전용사 선양비 정화활동 실시.

장흥군회 : 5월3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참전탑을 정비하고 6 · 25전쟁 당시 참전하였던 참전 국기 교체.

무안군회 : 6월4일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무안읍 남산 충혼탑 정화활동 실시.

장성군회 : 5월28일 장성댐 체육공원내 6 · 25 참전용사 기념탑 환경정비활동 실시.

경상북도 향군

경북도회 : 5월25일 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큰 미래를 향해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다짐하는 '다시뛰자 경북! 범도민추진위 추진위' 출범식 참석. 6월9일 신임 사무국장 보직신고 및 업무보고.

영덕군회 : 여성회와 남정면 향군은 6월4일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 문산호 개관을 앞두고 환경정화운동 실시.

영천시회 : 6월3일 호국보훈의 달과 6 · 25전쟁 70주년을 맞아 영천호국원에서 호국영령 추모 및 묘비닦기 봉사활동 실시. 5월22일 클린영천 방역 대청소의 날 캠페인에 참여하여 환경정화 활동 실시.

영주시회 : 6월18일 축협 한우프라자 대회의실에서 장욱현 영주시장과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직원 · 읍면동회장 연석회의 및 미뤄졌던 신임 민병철 회장, 이임 나진훈 회장 이 취임식 개최. 여성회는 6월2일, 5일 제65회 현충일을 앞두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기리며 충혼탑 주변 정화활동 실시.

의성군회 : 여성회는 6월5일 현충일 추념식을 앞두고 충혼탑 부근정화 활동 실시.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6월15일 (주)경한코리아(대표 이상연)의 초청으로 회사를 방문하여 회사소개 청취, 생산시설 견학.

창원 진해구회 : 여성회는 5월28일 6 · 25참전기념비를 찾아 참배 및 주변 황경 정화활동. 5월27일 여성회관에서 소외이웃에 전달될 밑반찬 및 김치 등을 만들어 직접 배달. 6월5일 현충일을 앞두고 소죽도에 위치한 월남참전 기념비 청소 및 주변 환경정화 활동 실시.

창원 마산 합포 회원구회 : 5월27일 성산명가에서 허성무 창원시장 주관, 창원시 보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창원 의창구회 : 의창동 향군 여성회는 6월15일 주변 환경정화활동 실시.

합천군회 : 여성회는 6월1일, 2일 관내 어려운 세대 생일 찾아주기 봉사활동 실시.

거제시회 : 여성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 · 25참전자 및 미망인 100가구에 밑반찬 및 초란 지원. 하청면 향군은 6월3일 현충일을 앞두고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산화하신 6 · 25참전용사 묘지 정화작업 실시. 연초면 향군도 6월3일 연사리에 위치한 참전묘지 정화작업 실시.

통영시회 : 6월9일 통영 고려병원과 향군 우대 가맹 협약을 체결, 회원들에게 더 많은 의료혜택 확대 지원. 여성회는 6월13일 취약계층 겨울빨래 지원사업에 참여, 생활이 어려운 6 · 25참전 회원 가정을 찾아 봉사. 5월30일 광도면 노인정 5개곳을 방문, 소독 및 청소 봉사활동 실시.

김해시회 : 여성회는 6월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참전탑, 전공탑 등 관내 현충시설 환경정화활동 실시.

하동군회 : 6월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적량면 호국공원 주변 환경정화 작업 실시. 금성면회는 6월14일 사천 충혼탑 및 거제 포로수용소를 방문, 안보의식함양과 친목 도모. 여성회는 6월16일 적량면 블루베리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봉사.

창녕군회 : 6월4일 박진 전쟁기념관에서 실시된 6 · 25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참석.

진주시회 : 6월5일 진주시청에서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에 따른 발열체크 봉사활동 실시. 6월19일부터 20일까지 울릉도 및 독도 일대에서 안보현장 견학 행사 가져.

의령군회 : 여성회와 청년단은 6월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통일동산 및 호국공원 정화활동 실시.

산청군회 : 6월9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산청호국원을 찾아 호국영령 추모.

밀양시회 : 여성회는 6월11일 밀양시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실시.

양산시회 : 6월10일 자매부대 제7508부대 1대대장 이 취임식 참석.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6월2일 해병대 제9여단을 방문, 업무협조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 6월16일 향군회관에서 안보교수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안보교육 방향 토의. 여성회는 6월11일 이호 테우 해변에서 쓰레기 수거 및 청소 등 자연정화 활동 실시.

서귀포시회 : 6월4일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이해 해병대 93대대 장병들과 함께 충혼묘지 환경정비 활동 실시. 동홍동회는 5월31일 동홍천 및 솔오름 일원에서 여름철 질병을 예방하고 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정비 활동 실시.

친목단체 활동

제59주년 ROTC의 날 행사

ROTC중앙회(회장 박진서)는 6월1일 국방컨벤션에서 제59주년 ROTC의 날 행사를 거행했다.

광복군 합동 추모제

광복군동지회(회장 김영관)는 6월1일 국립서울현충원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에서 광복군 창군 80주년을 맞이하여 광복군 합동 추모제를 거행했다.

신임 이화종 회장 선출

월남전참전자회(회장 이화종) 6월2일 서초 더케이 호텔에서 2020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갖고 이화종 회장을 선출했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성우회(회장 이종옥)는 6월4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호국영령들의 얼을 기렸다.

화살머리고지전투 추모행사

육군예비사관학교총동문회(회장 김면중)는 6월5일 백마고지전적비에서 육군제5사단이 주관하는 화살머리고지 전투 추모행사에 참석했다.

호국영령 추모행사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회장 남권희)는 6월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모행사를 거행하고 호국영령들의 얼을 기렸다.

최차규 회장 취임식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회장 최차규)는 6월18일 공군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최차규 회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전몰장병 합동 추모식

육군본부직할결사대전우회(회장 전인식)는 6월18일 강원도 인제 백골병단전적비에서 전몰장병 합동 추모식을 거행했다.

도솔산전투 전승 추모행사

해병대전우회(총재 이홍희)는 6월19일 강원도 양구군 도솔산전투위령비앞에서 제69주년 도솔산전투 전승 추모행사를 가졌다.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협약 업소현황**
전국 1,184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 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http://korva.or.kr) 향군 우대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역 시·도 / 시·군·구 재향군인회에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오산한국병원**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16) 031-379-8676 : 10%

기타

- **남대문비젼안경원**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02-771-1199 : 30~50%
- **코바플라워**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48-1) 02-3679-7070 : 근조 3단 화환 78,000원, 축하 3단 화환 59,000원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051-990-6114 : 20%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보니파시오요양병원**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43-5) 042-717-1000 : 20%
- **성심치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3) 031-747-4340 : 10%
- **연세안과의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65번길 17) 032-543-3471 : 20~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03-11) 055-644-1777 : 15%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 새재2길 32-3) 054-504-7077 : 특별할인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신안비치호텔** (전남 목포시 죽교동 440-4) 061-243-3399 : 30%

기타

- **그린라군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 **두산익스프레스** (대전시 서구 월평동 1085) 042-488-0424 : 10%
-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30%

건강정보

당뇨병 환자의 '슬기로운 여름 생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 여름은 당뇨병 환자에게는 유독 힘든 계절이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평소보다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냉방시설에서 운동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적정한 체중 조절을 위해 운동은 필수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가장 무더운 시간대는 피해야 한다. 특히 혈당이 높을 때 운동을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온열 질환 위험성이 높고, 땀이 나면서 탈수가 생길 수 있어서다.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면 냉방시설을 갖춘 헬스장, 수영장, 대형마트, 백화점, 서점 등 공공장소를 걷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수영은 여름철에 권유하기 좋은 운동이다. 다만 30~60분 정도가 적당하고, 운동 중에는 발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더워도 음료대신 물

더위로 인해 생기는 갈증을 탄산이나 주스 등 단 음료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음료수 섭취로 인해 혈당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혈당이 높아질수록 소변 량도 함께 증가해 갈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갈증이 날 땐 시원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장시간 운동을 할 땐 탈수나 저혈당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5~10% 미만의 당분이 함유된 스포츠음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당뇨병 환자에서 탈수가 발생하면 신장이나 심기능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수박, 참외, 복숭아, 포도 등 여름철 제철 과일은 무기질과 비타민 보충에 있어서 중요한 식품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혈당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섭취할 양을 미리 정해놓고 1~2쪽씩 다양한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규칙적인 식사 중요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이 너무 올라가지 않게 열을 발산하면서 땀을 흘리게 되고 입맛도 떨어진다. 늘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당뇨병 환자에서 식욕 감소는 어느 정도 혈당조절에 도움이 될 순 있다. 그러나 정도가 너무 심해 식사를 거를 정도라면 저혈당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약물치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는 정해진 시간에 먹는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 입맛이 없을 땐 냉콩국수, 냉채 등 계절 음식으로 색다른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세밀한 발 관리 필요

당뇨 환자에게 발은 언제나 특별 관리 대상이다. 당뇨 합병증의 가장 흔한 질환이 발에서 먼저 나타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뇨 환자는 신경감각과 혈액 순환 등의 기능이 정상인보다 떨어져 온도 변화와 통증에 둔감하다. 특히 여름철엔 샌들을 신으면서 발이 노출되는데, 이때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잘 감지하지 못해 심각한 염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름철엔 매일 발을 자가 검진하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거울을 사용해서 발바닥, 발가락 사이, 발뒤꿈치까지 잘 살피고 피부가 붉게 편하거나 붓고 열감이 느껴지는지 관찰이 필요하다. 땀이 많이 난다면 파우더를 발라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메디팜스투데이〉

향군장학기금

※ 기간 : 20년 5월 21일 ~ 20년 6월 22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개인**
- 경기도 부천시재향군인회 심곡동회 회장 조상익 2(27)

▶ **정기기부**
- 前 홍보실장 이정호 1(269)
- 권율부대 강모아 1(59)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 금 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재향군인신문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6 · 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 6 · 25전쟁 전승기념관을 찾아 ⑥

낙동강전선 최후 방어선이었던 박진지구전투 승리 기려

미 2사단 · 24사단, 2주간 공방…최정예 북한군 4사단 격퇴

박진전쟁기념관

한국전쟁 때 낙동강전선의 최후 방어선이었던 박진지구전투의 전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기념관이다.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월하리의 월상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세운 박진전쟁기념관은 부지면적 9,781㎡, 건축총면적 722.13㎡의 지상 1층 건물이다. 1999년 6월 육군본부로부터 건립승인을 받은 후 2003년 11월 준공하여 2004년 6월 25일 개관하였다. 기념관 건립에 투여된 사업비는 약 34억원이다.

기념관 내부에는 정보사령부, 부산군수사령부 등에서 수령한 총 32종의 무기류 · 정찰장비 · 침투장비와 화폐 · 증명문건 · 의약품 · 일용품 등의 전시품, 한국전쟁과 박진진구전투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영상 · 모형 · 패널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야외에는 탱크(M-47) · 장갑차(M557) · 견인포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기념관 전시코너는 '전쟁발발', '남으로 자유를 찾아', '최후의 저지선 낙동강', '남북한 전투장비', '혈전일지', '한맺힌 38선', '전쟁 그 후' 라는 주제로 나누어져 있고, 기념관 가운데에 당시 박진전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축소모형이 있으며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는 영상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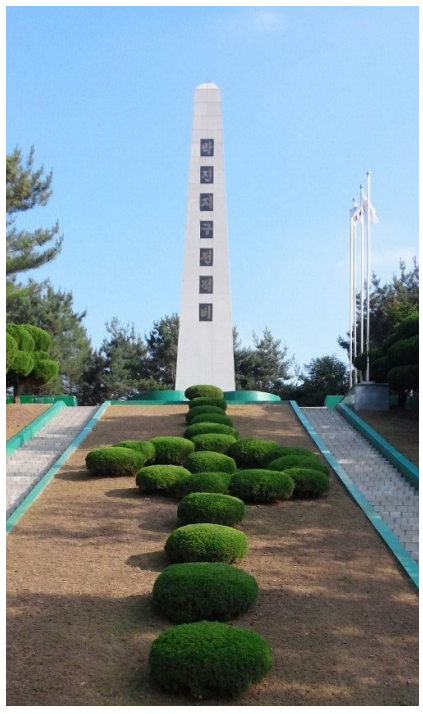
※ 박진지구 전투

박진지구전투는 1950년 8월6일부터 10월4일까지 박진나루가 있는 곳에서 벌어진 전투로 미군 제2사단과 제24사단이 북한군 제4사단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함으로써 아군이 낙동강을 건너 반격하게 되고 나아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함께 압록강까지 진격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 전투다.

개전 40여 일이 경과한 8월초 북한인민군이 부산, 포항과 경상도 동해안, 대구, 울산, 경주, 영천과 그 이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점령한 상황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을 끼고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게 됐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절박한 상황 하에서 왜관-상주-영덕 전선은 국군이, 박진지역이 포함된 현풍-창녕-진동을 전선은 유엔군이 방어하게 되었다. 이 작전지역의 유엔군은 주로 미군이었다.

이곳 박진에서 부산을 점령 하기위해 낙동강을 건너려던 북한인민군의 최정예 4사단과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던 미군 제2사단이 2주간의 격전을 벌였다. 수중교를 가설해 한 때 영산면까지 진출했던 인민군은 미군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격에 의해 다시 물러나고 결과적으로 미군이 주축인 유엔군이 낙동강전선을 지켜냈던 것이다.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된 국군과 유엔군은 전열을 재정비해 '인천상륙작전' 을 성공시켰다.



안보정세보고/ 북한, 남북관계 단절 배경과 파장

미 대선 앞두고, 침체된 경제회복 승부 수…대남 불신도 한 몫

북한은 김여정의 6월 13일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듯하다"라고 규정하며,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 지 사흘만인 6월 16일,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 해체했다. 이로써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활기를 띠게 된 남북대화와 교류 · 협력은 2년여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는 당분간 남북관계의 공식적인 단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최소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될 우려가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의 배경과 그 파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대남 강경노선 전환의 배경

대남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 과시

북한이 남북관계의 일방적 단절을 선언한 배경에는 북한이 가진 대남 우월감과 자신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최소한 전략능력에 관한 한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자기 확신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권력 엘리트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이후의 남북협력 추진과정에서 북한의 주기적인 합의정신 훼손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대해 제대로 지적하고 항의하거나 북한의 이행을 촉구하지 못했다. 금년 3월 이루어진 북한의 잇단 단거리발사체 발사에도 '유감 표명' 정도에 그쳤을 뿐이다. 이는 북한 지도층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을 수 있다.

대남 불신과 가치 평가절하

북한이 미 · 북 대화에 나서는 가장 큰 목적은 대북제재의 조기 완화 · 해제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국과 국교를 통한 정상국가로의 도약을 원했으나 이것이 결국 충족되지 못했다. 이는 북한의 가장 큰 불만일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 결국, 2019년 연말을 넘기면서 북한은 한국의 '중재자 · 촉진자' 역할에 대한 불신을 가졌고, 미국에 의한 국제제재의 해제가 어렵다면 한국이라도 대북제재로부터 이탈함으로써 대북제재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이 북한이 추구하는 또 다른 목표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적 사고' 마저도 실현되지 않았다.

북한은 4월 한국에서의 총선 결과를 보고 잠시 한국 정부가 과연 저 두 가지의 기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를 평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한국 정부가 제시한 것은 개인차원의 대북관광 재개 검토, 남북 보건 · 의료 협력, 남북 도로 · 철도 연결 준비 등이었고 이는 북한이 만족할 있는 대안이 아니었을 것이다. 즉, 2018년 이후 북한이 한국에 기대하였던 것은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 힘든 것이었으며, 이러한 과잉기대가 결국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으로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내부문제에 주력할 시간 벌기

북한의 내부적 사정 역시 남북대화 단절을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부터 김정은이 추진해 온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올해 종료연도(2016~2020)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5개년 계획은 전례 없던 고강도 대북제재 기간 동안 성과가 별로 없는 상황으로 북한이 2018년 이후 유난히 '자력갱생'을 강조해온 것 역시 이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였을 것이다. 2020년에 들어서는 여기에 '코로나 19' 변수가 추가되어 북한으로서는 일단 별 효용 없는 남북대화에 집중하기보다 내부 경제 발전에 정치력 · 행정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고려를 했을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현재 상황의 책임이 김정은 탓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 때문임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해 그 희생양을 한국으로 삼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에 대한 주의 환기

남북관계 단절 선언은 대남 메시지인 동시에 대미 메시지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10월 스톡홀름에서의 미 · 북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연말에서 2020년 초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양보를 촉구했고 '성탄절 선물', '새로운 전략무기' 등을 언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변하지 않았다. 더욱이 2020년에 들어 미국 역시 '코로나 19'의 영향권 내에 들고, 미국 대선전이 시작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점점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존재를 미국측에 각인시키는 것이 현 단계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거나, 혹은 최소한 11월의 미국 대선 이후 미국 행정부를 상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 측의 달라진 시각

대북전단이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는 힘들다.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최고 존엄'인 김정은에 대한 불경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대북전단은 이미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이루어져 온 일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것은 단순한 핑계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대북전단이 주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북한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 과거에 비해 김정은의 능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회의가 점증하는 시점이라면 비슷한 내용의 대북전단이라도 더 큰 파괴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북전단의 발송 수단이 변경되어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전단을 접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남북관계 단절선언 시기는 왜 지금일까?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이 다중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라면, 그 시기가 왜 '지금'인가 의문도 제기된다. 미 · 북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아져,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2019년 연말에 강경기조로의 급격한 선회를 선택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의 단절이 대미/대외 메시지의 성격도 지니는 만큼, '코로나' 문제에 미국 및 세계의 이목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별 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3월 3일의 김여정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에 집착하고 있지 않음을 암시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6월이라는 타이밍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금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다시 한 번 미 · 북 협상타결을 시도하려면 하반기에 남북관계 단절을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남북관계의 경색이 한반도 긴장과 연결되는 만큼, 협상 상대인 미국이 북한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제재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2021년의 경제상황을 낙관하기 어렵기에 가능한 조기에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즉, 당분간 제재를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쯤은 대북제재에 대한 강한 저항감을 보여줘야 2020년 말이나 2021년 초 제재 완화 · 해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려면 한국을 초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만약 북한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도발까지 선택한다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중 · 러 등 주변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6월~8월에는 한국 혹은 한 · 미 차원의 연습 · 훈련이 다시 시작된다. 이를 긴장조성행위로 규정하여 중 · 러 등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북한의 행태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그 동안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핵심은 어떠한 방침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에서 벗어나 가끔씩 실행에 옮긴다는 점이다. 즉, 행동이 뒷받침된 선언을 통해 자신들의 발표가 공언이 아님을 보여주는 한편, 이를 매번 시행하지는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차단해 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선언한 조치 중 남북한 간의 통신연락선 차단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 해체는 이미 시현되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북한이 당분간 우리와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더욱 강력히 보여주는 조치들이다.

우선 북한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정리하는 일이다. 북한은 2008년 금강산 사업이 중단되면서 관광지구내 우리 자산을 동결 · 몰수하였다. 개성공단의 경우 2016년 2월 우리 측이 가동중단을 선언하였을 때 자산 동결 및 군사통제 구역 지정을 선포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행태상 가장 우려되는 것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우리 시설 · 자산의 몰수 조치이다. 그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지역에 위치한 우리 시설의 해체이며, 이는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북한이 자신의 말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효과를 배가시킨다.

6월 북한이 내놓은 잇단 담화는 그들이 남북한 간에 이미 체결된 합의들을 지킬 뜻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중 『판문점 선언』과 『북한 공동선언』 중 남북 교류 · 협력 부분은 사실상 진전된 것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북한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뿐이다. 그렇다면 이미 이행단계에 들어섰던 합의가 파기되어 감을 보여주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대남 압박수단일 것이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공략할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이 합의서와 관련해서는 비무장지대 내 경비초소(GP) 철수 시범 사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이미 실시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북한 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 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예고하였으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에서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은 김정은의 지시로 보류되어 한반도 긴장 수위도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자행해온 행태를 미루어 짐작컨대 북한의 셈법과 다를 경우 언제든 군사적 행동의 강도 역시 격상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기존과 같은 단거리발사체의 발사,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과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의 공개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우리가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대미/대북정책 방향을 추구할 때까지 압박하거나, 혹은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비핵화)를 바꾸려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화와 협력의 강조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의지의 과시가 필요하다.

첫째,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대남인식과 대남정책 전반에 대한 재평가와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동안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의 예상 의도나 행태를 너무 선의 위주로만 읽은 것은 없는지, 김정은의 '전략적 결단'에 대해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자의적 해석을 한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둘째,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대화와 교류 · 협력 지속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자의적 해석이 원인이었든 오해에 의한 것이든 간에, 최근 북한의 담화에서 암시되는 사실은 "우리가 북한이 바란다고 생각한 것"이 "북한이 실제로 원했던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미국과 우리에 대해 끊임없이 '낡은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변하지 않은 북한의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교류 · 협력도 자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상당부분 우려되는 만큼, 북한에 발송하는 메시지에는 대화와 협력 제스처 이상으로 단호한 대응의지가 담겨야 한다. 우리의 대화와 협력의 추구 의지는 분명하지만 만약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나 도발이 있을 경우, 이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태세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대북정책은 북한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도 안심시켜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론 분열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과 그 파장, 아산정책연구원, 2020. 6. 17, 요약 발췌.

※ 본 안보정세 분석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